

李 “北 대화위한 韓中소통”...첩 “평화 에너지 불어넣겠다”

한중 정상회담

李 “北대화 전략적 소통 강화 기대”
시진핑 “對韓정책 연속·안정성 유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호응했다.

양 정상은 한목소리로 두 나라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한중 간의 경제협력은 수직적인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역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번영을 이뤘다”고 돌아봤다.

또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경험)이 양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측의 유사한 정치행보를 부각했다.

시 주석 역시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



서 중한관계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었다”며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3시48분부터 5시25분까지 97분간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87분)과 비교하면 10분,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41분)보다는 56분 각각 더 길게 만났다.

/연합뉴스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APEC 정상 경주선언’ 채택

AI 협력·인구 구조 변화 대응 협력 집약

‘WTO 다자간 무역체제’ 기존 표현 빠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정상들은 지난 1일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분야 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이날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먼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았다. 또 인공

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더 나아가 AI와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선언에는 2021-2024년 정상회의 공동선언 모두에 담겼던 ‘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WTO at its core)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체제’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아 협력 강조의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밀어붙이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한화오션 생산적 논의…미북대화 중요성 공감”

위성락 “서해구조물·한한령도 대화”

핵추진잠수함 관련 질문엔 말 아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문제를 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미 간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관이 돼 있다”며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

면, 그런 분위기 속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측의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꼽혔던 서해 구조물 문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협력)에 노력하지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공급망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했다. 양측은 미북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서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이번호
220603-중-139779